

現고1 치르는 수능 국어·수학 '공통 75%+선택 25%' 적용

교육부 2022학년도 수능 기본계획
사람·과탐은 구분없이 2과목 응시
EBS 연계율 70% → 50%로 축소
'문·이과 폐지' 놓고 엇박자 예고

현 고1이 치르게 될 2022학년도 대학수능능력시험 국어와 수학 영역이 공통과목 75%와 선택과목 25%로 출제되는 등 2015 개정교육과정에 따른 문·이과 구분 폐지가 추진된다. 하지만 서울대를 비롯해 상위권 대학의 경우 문과 따로 이과 따로 선택과목을 지정할 것으로 전망돼 학교 교육과 수능이 엇박자를 낼 것으로 우려된다.

교육부는 지난해 8월 확정된 2022학년도 대학입학제도 개편방안에 따른 2022학년도 수능 기본계획을 12일 발표했다.

기본계획에 따르면, 주요 과목인 수능 국어·수학 영역은 각각 문·이과 공통 과목에서 75%가 선택과목에서 25%가 출제된다. 이에 따라 수험생은 국어의 경우 '언어와 매체', '화법과 작문' 중, 수학에서는 '확률과 통계', '미적분', '기하' 중 1과목을 선택해 응시해야 한다.

이처럼 '공통+선택과목' 구조로 출제되는 국어·수학 영역 점수는 공통과목을 이용한 선택과목 점수 조정 절차를 거친 후 등급이 부여된다.

사람·과탐의 경우는 문·이과 계열 구분 없이 17개 과목 중 최대 2과목을 선택하도록 해 문·이과 구분을 폐지키로 했다.

또 기존대로 국어·수학·탐구는 상대평가로 진행되지만, 제2외국어/한문은 영어·한국사처럼 절대평가 9등급으로



2019학년도 수능 9월 모의평가가 열린 5일 오전 서울 여의도여고에서 학생들이 시험을 보고 있다. /연합뉴스

바뀐다. 수능 EBS 연계율은 기존 70%에서 50%로 축소되고, 연계방식도 과목 특성에 따라 간접연계로 전환된다.

이전처럼 한국사 영역은 필수로 응시해야 하고, 한국사 영역 이외 시험은 자유롭게 선택해 응시할 수 있다. 또 영역별 총문항 수와 배점, 시험시간과 시험 순서도 현행과 동일하다.

이에 따라 성적통지표에도 국어·수학·탐구 영역 점수는 표준점수, 백분위, 등급이 모두 기재되지만, 절대평가로 실시되는 한국어, 영어, 제2외국어/한문은 등급만 기재된다.

수능 국어·수학·사람·과탐이 이처럼 문·이과 구분을 폐지하는 방향으로 출제되지만, 대학들이 선택과목을 어떻게 정할지에 따라 문이과 구분 여부가 달라진다. 서울대 등 상위권 대학들의 경우 이들 영역 선택과목을 기존처럼 문과와 이과를 구분해 반영할 가능성이 커 학교 교육과 수능 대비 학습이 엇박자를 낼 가능성이 제기된다.

각 대학들은 2022학년도 대입시행계획을 내년 4월 발표할 예정으로 현재 고1은 그때까지 학교 교육과 수능 준비에 혼란을 겪을 수 있다. 서울대의 경우, 이미 이과 학생들은 과탐에서 2과목을 서로 다른 과목에서 I, II를 선택하도록 하는 등 사실상 문이과 통합은 물건건간 상태다.

입시업계에서는 변별력을 위해 상위권 대학은 문이과 구분을, 중하위권 대학은 학생 모집의 수월성을 위해 문이과 통합 방향으로 선택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임성호 종로학원하늘교육 대표는 "상위권 대학의 경우 수학영역의 확률과 통계, 미적분, 기하 등 3가지 선택과목 중 이과의 경우 미적분, 기하 과목을 특정해 사실상 문이과를 구분할 가능성이 크다"며 "하위권 대학들은 문이과 통합의 방향으로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한용수 기자 hys@metroseoul.co.kr

고려대, '기계학습모형 설명력' 검증

이성한 교수팀-신한은행 산학협력

최근 금융권이 빅데이터를 바탕으로 신용평가나 이상거래 탐지 등의 업무에 도입하고 있는 기계학습 모형(ML)이 도출한 결과에 대한 이유를 사용자가 이해할 수 있는 형태로 제공하는 인공지능(AI) 기법이 개발됐다.

고려대는 대학원 인공지능학과 패턴 인식 및 머신러닝 연구실 이성한 교수(사진)팀과 신한은행 디지털R&D센터가 이 같은 내용의 '기계학습모형의 설명력 확보를 위한 설명 가능한 AI 기법 개발' 산학협력과제를 성공적으로 완료했다고 12일 밝혔다.

ML모형은 빅데이터를 바탕으로 금융권 주요 업무에 도입되고 있으나, ML모형이 도출한 결과에 대한 이유를 사용자가 이해할 수 있는 형태로 제공해 모형의 투명성과 신뢰도를 확보해야 하는 필요성이 대두돼 왔다.



연구팀은 이에 지난 5월부터 최근까지 공동으로 ML 모형의 판단 결과에 대한 효과적인 설명력 제공 방법 개발을 추진해 왔으며, 금융

데이터를 기반으로 인공지능이 도출한 고객의 신용평가 결과에 대해 인간 수준에서 이해할 수 있는 근거 제시가 가능함을 개념적, 실험적으로 검증하는데 성공했다고 밝혔다.

이성한 교수는 "설명가능 인공지능 기술을 통해 인공지능 기반의 신용평가 결과에 대한 신뢰성 확보가 가능함에 따라, 금융 분야에서도 최신 기술을 적극적으로 적용해 신뢰할 수 있는 AI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용수 기자

성인 10명 중 4명 "광복절특사 반대"

성범죄자·정치인 반대 높아

성인남녀 42%는 광복절 특별사면에 대해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별사면을 반대하는 대상은 성범죄자, 정치인, 도로교통법 위반자 순이었다.

12일 인크루트가 알바콜과 함께 성인남녀 966명을 대상으로 올해 광복절 특사에 대해 설문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58%는 찬성을, 42%는 반대를 선택했다.

특사 찬성 이유로는 ▲'단순실수, 단순초범은 사면해줘야'(64%) ▲'생계형

운전자에게는 재기의 기회를 줘야'(30%)라는 응답이 많았다. 특사 반대 이유로는 ▲'범죄는 범죄'(33%) ▲'법 잘 지키고 사는 사람에 대한 역차별'(29%) ▲'법 무시 풍조 만연'(19%) ▲'재발위험'(18%) 순이었다.

사면을 반대하는 대상에 대해 선택하게 한 결과 ▲'성범죄자'(21%)가 가장 많았고, 이어 ▲'정치인'(17%) ▲'도로교통법 위반자 전부'(16%) ▲'도로교통법 위반자 중 음주운전자'(15%) ▲'경제사범'(14%) ▲'장기수'(9%) 순이었다.

/한용수 기자

고등학생 78.2% "日 불매운동 동참"

의류·먹거리·생활용품 등 불매

한일 양국의 무역 전쟁이 지속되는 가운데, 고교생 10명 중 약 8명은 일본 제품 불매에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진학사가 지난 2일~6일까지 진학닷컴 고1~고3 회원 372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78.2%

제품(4.8%), '도서'(2.1%) 등이었다.

일본 불매에 참여하는 이유로는 '일본의 규제가 한국에게 가하는 경제보복이라고 생각하기 때문'(50.2%)이라는 답변이 가장 많았다. 이어 '일본이 여러 과거사 문제를 제대로 사과하지 않고 있기 때문'(39.5%), '이번 이슈 발생 전부터 일본이 싫어서 일본 제품을 사지 않았다'(6.5%), '확실한 이유는 모르지만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고 있기 때문'(3.8%) 등이었다.

/한용수 기자

김영편입학원

학습컨설팅 박람회 개최

메가스터디교육은 대학 편입 전문 브랜드 김영편입학원이 편입을 준비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17일 오후 2시 서울 강남역 모나코스페이스에서 제3회 대학편입 인강 프리미엄 컨설팅 박람회를 개최한다고 12일 밝혔다.

박람회에서는 김영편입스타 강사진이 편입영어, 편입수학, 연고대 및 의 학계열 등 분야별 학습 컨설팅을 해준다. 또 모의고사 점수로 목표대학 합격 여부를 미리 파악해보고 체계적인 하반기 온라인 학습 설계를 제공하는 배치 컨설팅 등이 진행된다. /한용수 기자

서울시교육청 옛 조선신궁터에 '위안부 기림비' 건립

서울시교육청은 올해 2번째 맞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인 14일 서울시청과 협력해 서울시교육청 부지에 '위안부 기림비'를 세우고 당일 오후 3시 제막식을 거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위안부 기림비는 2017년 미국 대도시 최초로 위안부 기림비를 세웠던 미국 샌프란시스코 지역 교민들이 자발적으로 모금·제작해 서울시청에 기증한 것이다.

기림비는 일본 식민지배의 상징이자 옛조선신궁터 자리인 현 남산 자락 서울시교육청교육연구정보원 앞에 세워

진다. 160cm 높이의 한국·중국·필리핀 소녀 3명이 손을 맞잡고 이를 고(故) 김학순 할머니가 바라보는 모습을 실물 크기로 표현돼 있다.

관람자는 직접 기림비 세 명의 소녀 상 옆의 빈 곳에 들어가 소녀들과 함께 손을 잡고 동참할 수 있다.

이번에 세워지는 기림비 동상의 주변에는 안중근의사기념관, 한양도성 현장유적박물관(공사 중), 기억의 터, 백범 김구 동상, 안중근 동상 등이 자리하고 있어 초·중·고 역사교육에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용수 기자

세종대, '하계 금융취업특강' 진행

석의현 커리어빅 대표 키워드 제시

세종대학교 취업지원처가 지난달 23일 교내 군자관 312호에서 '2019 하계 금융취업특강'을 진행했다.

이번 특강은 석의현 커리어빅 대표가 맡았으며, 은행과 금융권의 취업 동향과 전략이 주제였다. 석 대표는 금융권 취업을 위해 ▲국가직무능력표준(NCS) ▲직무 ▲경력과 경험 ▲스펙 ▲블라인드 채용 등 5가지 키워드를 제시했다.

그는 "은행과 금융권 채용 프로세스를 정확히 알아야 한다"며 "자신만의 목표 은행과 금융기관을 선정하고 사



세종대학교 취업지원처가 지난달 23일 교내 군자관 312호에서 '2019 하계 금융취업특강'을 진행했다. /세종대학교

전에 기초 채용 정보를 수집하라"고 강조했다. /한용수 기자

중앙대 내일 '제2회 인공지능 인문학 국제학술대회'

중앙대는 14일 오전 9시 서울캠퍼스(310관 B601호)에서 '제2회 인공지능 인문학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한다고 12일 밝혔다.

중앙대 인공지능인문학 연구단(단장 이찬규)에서 주관하는 이번 학술대회는 '인공지능이 인간과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주제로 총 12개국의 연구자들이 참여한다. 김대식(KAIST, 한국), 폴 뒤무셀(리츠메이칸 대학, 일

본), 박진호(서울대, 한국) 교수의 기초 강연과 함께 15명의 초청 연사 발표 및 39개의 일반 발표가 예정되어 있다.

중앙대 관계자는 "인공지능이 인간의 삶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학제적 연구를 공유함으로써 미래 사회를 전망할 수 있는 인공지능인문학의 가능성을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학술대회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사전 및 당일등록 가능하다. /한용수 기자